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6년 11월 4일(월) 제677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권 주간 박재우 편집장 고병권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사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통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황산리 산 89

87% 찬성률...전공선택권 거부기로 학교측, 수강신청 2월로 연기



지난 1일(금) 67주년 기념동부총원 학생의 날 기념문화제가 본교에서 열림에 따라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학교 정문에 경찰 7개 중대가 투입되어 학교진출입 차량을 검문했다. 경찰이 학교 안으로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행사가 4시간 정도 지연되었다. 김학영 기자

본교 한총련 관련 구속자, 3·5년 중형 4·5일 공판 열릴 예정

지난 96 한총련 연세대 통일부장 관련 구속된 최진선(인문·사회 4)·강석현(사·노어 4)·배현석(공대·정보통신 2)군의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석현군이 구형량 5년, 배현석군이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영동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진선군은 현재 서울지법 본원 형사 합의 11부에서 조사받고 있으며 내일(5일) 2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구형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군은 국가보안법 고문 전담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처벌법(폭처법) 위반,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법(폭처법) 위반이다.

또한 지난 29일(화) 구형공판에서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강석현군은 내일(5일) 10시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형의는 최군과 같다.

한편 지난 21일(월) 열린 구형공판에서

3년을 선고받은 배현석군은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받는다. 배군은 현재 영동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명령제,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전 한총련 투쟁 재판 과정에 대해 용인법원 총판과 인권사업부장 강태중(동학·마인어 3)군은 "이번 사태는 연행에서 구속까지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였다고 모든 책임이 학생들에게 정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총련 투쟁 재판 과정에 대해 용인법원 총판과 인권사업부장 강태중(동학·마인어 3)군은 "이번 사태는 연행에서 구속까지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였다고 모든 책임이 학생들에게 정겨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한총련 투쟁 재판 과정에 대해 용인법원 총판과 인권사업부장 강태중(동학·마인어 3)군은 "이번 사태는 연행에서 구속까지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였다고 모든 책임이 학생들에게 정겨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한총련 투쟁 재판 과정에 대해 용인법원 총판과 인권사업부장 강태중(동학·마인어 3)군은 "이번 사태는 연행에서 구속까지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였다고 모든 책임이 학생들에게 정겨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한총련 투쟁 재판 과정에 대해 용인법원 총판과 인권사업부장 강태중(동학·마인어 3)군은 "이번 사태는 연행에서 구속까지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였다고 모든 책임이 학생들에게 정겨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수)·17일(목) 용인법원에서 진행된 '학교측의 일방적인 전공선택권 거부'에 관한 학부 1학년 총투표가 총 710명중 553명이 투표, 이중 482명인 87%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가결됨에 따라 학생측은 전공선택과 관련된 모든 학사일정 거부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공선택권 거부에 관한 표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전란을 맞은 학부 재투표는 대학입국이 전공선택을 비롯한 수강신청 기간을 2월로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장기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선택과 관련, 용인법원 이진섭교무과장은 "전공배치를 1·2학기 성적으로 하기 위해 수강신청기간을 2월로 연기했다"며 "결정이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장까지 이 기온이 될 것"이라고 학교측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서명철(인문·언어 3)군은 "최근 전공선택권 관련보장을 발표하고 있는 타학교 상황을 볼 때 우리의 요구는 결코 무리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며 "학교측이 보여주고 있는 시간강사와 미온적인 태도는 이후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학교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31일(목)에는 전공선택권 관련보

장을 위한 학부 1년생 단합대회가 교양관 휴게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학부 1년생 총투표' 이후 학생회의 이관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재투표의 실질적인 주제인 1학년들이 그대로 방치되기 쉬운 점에서 기획됐다.

이날 이 자리는 △서문관 1학년 학생들의 연세대 △학부재투표 진행경과와 이후 전망 보고 △학부 1학년생 결의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회는 이번주내에 총투표 결과와 타학교 상황들을 내용으로 한 '부모님께 드리는 글' 2차분을 각 가정에게 발송하고 교수들에게는 '공개질의서' 도서를 예정이다.

한편 이후 투쟁에 대해 용인법원 총판과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모성훈(인문·사회 4)군은 "총학생회 선거기간까지 투쟁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며 "총간직전까지는 3월에 집단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군은 "반증에는 학부 1년생 비상연락망 체계를 우리도 장기적인 소시지를 발간하는 등 개강이후에도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부 1년생 단합대회에 교양관 휴게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학부 1년생 총투표' 이후 학생회의 이관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재투표의 실질적인 주제인 1학년들이 그대로 방치되기 쉬운 점에서 기획됐다.

국책대 실사단 16일 본교 방문 11월 초순 발표예정

학생들이 중간고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던 지난 16일(수) 아침 7시 30분, 6명의 국책대학실사단 실사단이 본교 서울법원앞에서 안방민 총장을 비롯한 한 학교 직원들의 수행으로 실사단은 ▲국책대전문대학 양성 기관으로서의 지역여부 ▲교육과 종합연구센터, 지역학전문대학원 운영의지, 능력 등을 조사하고 돌아갔다. 또 이 조사단은 학교측이 사정에 제출한 계획서에 대한 최종과 질문도 이뤄졌고, 계획서의 내용을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지역학 전문 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5개년 계획에 관한 것이다. 국책대학 선정 실사단은 본교를 비롯, 약 9개 대학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책대학으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선정 후에도 매년 감사단이 방문한다. 국책대학 선정여부는 11월 초순에 발표될 전망이다.



역사의 '치매'

▲최근 4~50대의 주부들을 괴롭히는 병이 나돌고 있다. 이른바 '주부건강망'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알게 된 증상중의 하나를 소개하겠다. 한주부가 아파트 계단 중간에서 울고 있었다고 한다. 이유를 들어본 자신은 자신이 올라가는 중간지점 중간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일생을 가정과 가족에 헌신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들에게 노후에 찾아오는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국가의 발전을 논하고 결정한다는 국회의원 행적의 행태들은 거의 '치매'에 가깝다.

최근 신한금융은 '안보'를 이유로 안기부 수사국의 화를 거론했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장강제 사건을 발두로 시작된 냉전분위기를 타고 강행할 방침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국방비의 증액을 외치고 나섰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래 계속 비례해서 온 국방비를 예산 증액과 같은 비율로 인상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왔다. 거기에 4·19, 5·18 등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이들의 숨은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역사는 어디로 향하여 할 지 방향조차 잃어버린 듯 하다.

▲역사는 항상 정방향을 향해 전진해나간다. 자신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른채 정방을 일관하고 수렁에 자라에 있어서는 안된다. 집권이라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투쟁이 짓밟혀서 안될 것이다. 1996년, 지금 그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를 잡아야 할때가 아닌가.

고병권

지면 안내

고급직 수강신청문제 제발.....3면
무더기 수강신청 취소 사태가 발생했다. 학교측은 다만 학생측 잘못이라는데...

한총련 총결기 투쟁보도..... 8면
군안입법본회와 민주기본권 경위를 위한 한총련 전국 동시다발 총결기 투쟁이 진행됐다.

법률상담소
가이기에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 법이 우리에게 가까워진다.

진급 설문조사..... 9면
전대거인이 대학생 정치의식 설문조사했다.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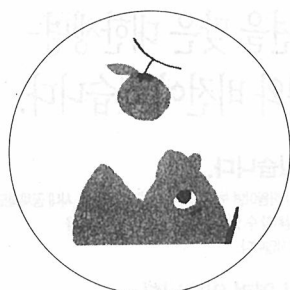
법률상담소
가이기에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 법이 우리에게 가까워진다.

진급 설문조사..... 9면
전대거인이 대학생 정치의식 설문조사했다.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했다.

반학교 문화제..... 7면
학교교육에 반발하는 이들의 3일간 축제, 축제에 있는 곳에 종교교육이 보인다(?)

진급 설문조사..... 9면
전대거인이 대학생 정치의식 설문조사했다.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했다.

기다리지 말고



학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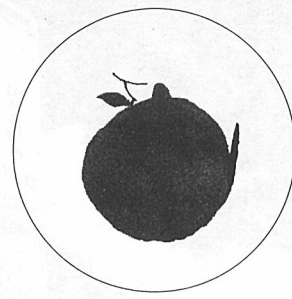
모집부분 : 인문·사회·자연과학
당 선 작 : 50만원
가 작 : 25만원
대 상 : 본교 재학생

외대 문학
외대 학술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우직함보다
더 세상을 바꿀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성과 우직함
겸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민족자주론
외대학보

따 먹음



문학상

모집부분 : 시·소설
시나리오·비평·번역
당 선 작 : 50만원
가 작 : 25만원
대 상 : 본교 재학생

사설

부패, 미봉책 근절해야

부패와 그 방지대책 문제가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릉공비사건으로 국방문제에 큰 구멍이 뚫어진 가운데 터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의 국방사업 관련 비리는 연일 언론을 장식하면서 정부의 '부정부패척결'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의 추속으로 사건이 정리될 즈음에 서울시내 버스비사건이 또 발생해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이로 인해 사생활이 들끓고 있다.

왜 이 모양인가? 문민정부 들어서 개혁적 추진과 사업작업이 한창일 당시에는 그 기세에 의해 어느 정도 사회가 맑아지는가 했건만 언제부턴가 선거를 의식한 수주제 공직자들과 더불어 드러난 개혁의지 약화현상에 따라 다시금 정치권, 경제권, 행정 각 부서, 국부상층부 및 사회 각계의 부정부패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국외조직과 관계세력이 결집한 로비에 막을 못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문민정부 들어서 부정부패척결의 가장 거시적인 성과는 전·노 두 전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치고 나간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정호태 전 청와대 비서관, 김형국 전 노동부장관 비서관에서부터 인천 세무서원들의 엄청난 세무비리사건, 그리고 위서서 거론한 최근의 비리사건들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사건화하여 걸로 된 비리사건은 오로지 병신과 일각, 구두의 일로 끝나고 끝났을 뿐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부패의 특징은 아주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고 한다. 제재적 부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에서 몇몇 공직자나 기업인의 비리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깊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권과 물가나 속에서 생활하는 중개자나 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뇌물'과 '조금'이라는 말이 '표'가 왜 구별되지 못했는가? 눈앞에서 사기부패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한다. 정부 부패척결을 위해 고지원을 거둬들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이나 실천의지에 있어선 별로 진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일각에서는 공동선 실천운동 등 도덕성 회복운동을 펴기도 하지만 부패문제에 관한 한 격려소양의 감이 뜸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은 우리의 주목을 끌고 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부패방지법 제정법 제정되면 부패문제가 모두 자결로 해결되리라고 순진하게 믿어서 아님도 물론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의 주된 문제점으로 부패방지기가 다문화되어 있고 부패방지법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출제자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부패방지기는 감사원, 중앙부처의 자체감사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 다문화되어 있고, 부패관련법규 또한 감사원법,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중복감사와 상호 협동 등 적지 않은 부차적과 비효율성을 노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겠다.

부패방지법 규정을 보면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 등 그 수가 적지 않지만 효과적인 방지책이 결여되어 있고, 또 돈세탁 방지 등 법률적인 공백부분이 많다. 더구나 있는 법조도 집행에 철저하지 못하여 공무원 범죄의 경우 기소되는 확률은 10%를 조금 웃돌 뿐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체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로 풀려나고도 실행을 살피지도 곧 사면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그 점은 특히 정치권이나 경제계와 연계된 범죄일수록 더욱 그러하고 그것은 지난 8.15특별사면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부패행위를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용기있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을 은배, 보호하는 부패공직자를 처벌하는 '백' 제도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권부터 독립된 부패방지기의 설립에 의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한다. 때면 그 때만 떠돌아다니는 사건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과감히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단언을 내려야 할 때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담보해주는 무기로 작용할 것이다.

축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의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2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작성한 목초지를 담기 함께 나눕니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울산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발송합니다. (하일빌, 나무누나 OEDAE 모두 동일)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전공선택 자율권 보장해야

우리 학교에서 학부제 혹은 계열제라고 불리는 제도가 정부의 '교육경쟁력 향상'이라는 모토 아래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정리 아래 하나의 융통성만 대박이다 여가까지 소위, 학부 또는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과가 통합되었다. 산체들의 말속에 의하면 학부제의 학안으로부터 시행까지는 불과 임시요강의 확정 2주전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적어도 한 학기 정도의 토론과 문제점 검토, 그리고 교수진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마지막

어려운 과정인지는 잘 알지만 학제에 따라 과가 갈라 희망하지 못하는 과에 가계로써는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적으리라 생각된다.

정준호 (상대·상경 1)

기숙사 더 이상 못 참겠다

얼마전 의대외교에 기숙사에 관한 글이 실렸다. 그 글을 읽고 많은 학생들이 동감했다. 하지만, 여자학생들은 오�히 더 강제로 과제를 하는 일정이어서 모두 허를 내두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거슬러 올라가 남녀공동의 원칙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남자의 경우는 들어오려면 커가시간이 12시까지이고 안들어와도 상관없다. 하지만, 여자 커가 시간은 10시 30분까지이고 안들어오면 침대로 발발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런 수 없이 따라서 하는 여자생들이나, 그렇다고 사강이 바뀌어서 들어오지 않거나 거의 없다. 예전부터 들어오지 않는 사강이 커본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각 층에 있는 사강이 3개중 1개정도만 들어간다. 대야가 모자란다고 빨래 담그고 말리고 하는데, 사강 대야가 모자란 것도 없다. 세면장 9개의 수도꼭지중 4개만 열린다.

매일하는 점호는 정말 싫다. 이따서 자다가도 마를 참할 수 없다. 조금 있다 일어나야한다는 생각에 의욕이 없다. 사강 대야가 모자란 것도 없다. 세면장 9개의 수도꼭지중 4개만 열린다.

그것도 국외학원에 따라서 교과제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과 선택을 한다.

얼마전 의대외교, 의대어문에도 기숙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래도, 여자생들에서는 시험장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강은 학생들을 더 통제하려고 나서서 것 같다. 이에 이관준조자 나을 수 없게. 군대에서 생활하던 그 계층의식이 머리속에 꼭 박혀있는 사람은 여자생들을 같은 인격체가 아닌 단지 낮은 계층의 부하를 다루듯이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억울하다. 다음 학기 기숙사 생활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기숙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여과과 96

정기영화 상영을 바라며

처음으로 학생복지국 소극장에 가게 되었다. 물론 요즘 한창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종영학회에서 주관하는 여성문화제에서 하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내일도 흐르는 강' 무척 보고 싶었던 영화였고 좋은 영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종영 영화를 보았다.

생각보다 스크린도 컸고(사실은 한 번이었던) 소리와 화질도 비로소 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참 좋은 시간이고 작은 행복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이런 영화를 언제나 볼 수 있는 용인문화공예의 창립에 있다.

특별한 행사나, 영화제 등을 제외하고 무인 그 흔한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소극장은 좋은 조건인 장소도 생겼는데도 말이다.

서울문화공예는 매주 정기영화상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왜 용인문화공예는 없는가? 가족이나 문화적으로 일제적 위치에 놓여 있는 용인문화공예의 학우들을 위해 더 많은 영화나 문화공연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적절하게 시간을 배치하고 조금의 시설비를 투자해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학생들이 따뜻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학교의 작은 성의이다. 돈이 그리 많이 들지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실인텐데.....

바쁘신시간에 용인에서도 정기영화상영이 있으면 한다. 물론 좋은 영화와 재미있는 영화로 말이다.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문화행사도 별로 없는 줄에는 학교가 좀더 열려 보인다. 문화적 빈곤과 영화관으로 학생들은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학교공예의 작은 성의를 기대해 본다. 그것만큼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정환(경상·경영정보 3)

이제 모두 절을 연습하자

얼마 전에 캐나다에 갔다가 병원 신세를 지고 돌아온 분이 많이 환자로서 그렇게 대접받아 보기는 평생 처음이었다고 한다. 입원수속도 까다롭지 않고 의사와 간호원도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분처럼 외국 여행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돌아오는 이가 적지 않다.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캐나다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다.

사실은 요즈음 한국에서도 친절이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은행이나 백화점의 종업원들이 많이 상냥하고 친절해졌고, 민원 부서의 공무원들도 옛날같지 않다. 대기업의 직원들은 강압이 모여 절 연습까지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밝아지고 돌아오는 이가 적지 않다.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캐나다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다.

특히 내가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외대의 사정은 심각하다. 직원들의 불만결은 학생을 괴롭히고 교수의 수업과 연구만 방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처럼 찾아오는 학부모도 그 밖의 손님들을 대접하게, 분배하게 한다. 학장부속으로 졸업을 못하게 된 학생의 부모도 교수들을 찾아갔다가 말 한마디 못해 보고 집사람처럼 쫓겨 나가는 하마면 강사가 잘못 처리된 성적을 고치기 위해 교과하에 갔다가 혼잣말 듣고 돌아오는 것이 외대의 현실이다.

두어 주 전의 일이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바리 무렵에 두 핸드아웃을 찾으러 교양부에 가 보니 우연히도 비어있고 직원도 없다. 이튿날 다음주에 갈 것을 또 부탁하러 교양부에 갔더니 직원이 어제의 실수라는 사과도 없이 이제는 교양부에서 그런 상부를 못하게 나보고 직접 출판부도 가지고 가라. 거길 가니까 이번에는 인쇄소에 밖에 따로 있으니 그리 가라. 그것이 출판부 소속이긴 하지만 그 일을 자기들이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직원들 개개인보다는 체제에 있는 듯하다. 아무리 불성실, 불친절해도 정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나는 국내의 신문들 조사하기 위해 정기간행물실에 자주 갔다. 하루는 용인도서관에서 외국신문을 보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와서 재 사부실일 때 하라도 안받고 들어왔다는 등 일을 방해하기에 열광자에게 그를 불러 주의를 주고 나에게 사과를 시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못 들은 채 고고 오하러 나보고 참으라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말을 더 듣지 않고 지나갔는데 지난 봄에 도서관에서 또 그 직원에게 비슷한 방해를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관장에게 그 징계를 요구했으나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나보고 그 직원과 화해하라는 것이다. 그 후로는 용인 도서관장을 피했다.

독일어와 스페인어 교수의 외대는 온 지 삼년이 다 되던 지난 해 겨울에 자기가 삼년 박사는 더 이상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때에서 수선해서 그 의 계약이 한 해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는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되어서 그것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그는 여러 생각 끝에 충성심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비서실에서 면담을 거절당하고 그 후로 부끄럽고 억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국민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경례하에 있을 수 없고 구성원들을 대접하지 않는 집단에 성장,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진전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된다.

황종인
(독일어과 교수)

쫓쫓 Y대는 많이 못먹어서 그래...

EC 2Hmad -

물었냐?	- 재단 -		그럼, 학생들은 우리가 더 낫지
처리리 파리가 새리고 해라!	- W·B -		- CPA -
실속과 외대	- 나 -	주제: 외대 Y대보다 낫는데... 국책대학성 정오 실시단원이 한할	그래 얼마나 편했어 학교가 좁으니
맛! 외대는 Y대보다 낫다.	- ksd -	장난 치냐?	- 無 -
			우리 이빠가 나 돌아올 때 용역대학원 세워꺼든.
			- 갑부 아들 -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생명-무한한 기회와 비전이 있습니다.

열린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 지식, 경력을 소유한 직원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내 공제제도-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알하고 싶은 직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재양성의 의지입니다.

자아발전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종합금융그룹사 국내 및 해외 투자자산을 운용할 21C FED과정-사내공제제도를 통해 선발, 국내 및 국제연수기회에서 2년간 연구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신바람 나는 회사 구현을 위한 열린인사의 실천입니다.



* 21C FED과정 : Financial Expert Development

4944



▶▶▶ '무로법률상담소' 그 1년

특명! 법학교육을 개혁하라

학생참여 유도 · 홍보 활성화 필요



담당교수: 박규하 교수(법학연구소)
변제비: 1000원
상담시간: 월요일 오후 9시 30분 ~ 4시 30분
오전 11시 ~ 4시 30분
문의: 961-4072



법학교육개혁과 지역사회봉사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설립했던 '법률상담소'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사진은 법률상담하는 모습.

"전체법 원으로서 내걸었던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
"식 당 고생하며 아르바이트 했는데 한 톨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난감한 일들이 당사에게 닥쳐 올 때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당사자도 당황하기 십상이다. 일반과 분한 마음을 달랠 호소할 길이 없어 팔팔대는 일 외에 당신이 할 일 없다. 이럴 때

세력기 위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법'은 너무나 먼 곳에 있고 '법'과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법률'이 역시 너무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먼 곳에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니 벌써 1년이나 됐다. 다름이 법대에 법학연구소를 지난 11월 6일부터 '무로 법률상담소'를 운영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주권, 직원, 학생들을 상대로 100여건의 변호사 상담을, 200여 건의 사법시험·일반 상담을 통해 이곳을 거처했다.

법률상담소는 한층 '시민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던 지난해 '법학교육 개혁'과 '지역사회 봉사'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우며 출발했다. 자원봉사 학생들이 전화상담을 받고 이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주 월요일마다 본교 출신의 변호사 6명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변호사는 "모교 상담을 맡았던 경험이 변호사는 '모교

에 대한 봉사라 생각하여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있었던 상담은 어떤 일로 인해 본교 학생의 친척이 구속됐는데 그의 변호를 맡아 '법률'로 끝까지 끌고 간 사건이다"라며 법률상담소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기쁨을 얘기한다.

그러나 1년을 맞이한 법률상담소는 지금까지의 성과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숙제 또한 산적해 있다.

우선, 상담소를 통해 접수받은 사건들을 실제 법학교육에 이용함으로써 이론과 현실간의 조화를 꾀해왔던 본래 취지는 온전하게 하고 지금은 단지 상담원들의 적정기회를 해결해주는 '기능적 측면'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담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주일(대학원 박사과정)은 "학생들 참여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학생에 대한 교육을 인정해주거나 교양학점으로서 인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상담소에 대한 홍보부족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플래카드와 지방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꽤 찾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꾸준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세계, 상담공간의 부재, 법률상담의 특성상 '비밀보장'이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연구소와 겹쳐있어 상담 도중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 상담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만능 법학과 일반상식 사이에 괴리가 큰 곳은 없다. 이는 법학자들이 항상 기존의 이론에만 머물러 현실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상담소는 지역사회 봉사 뿐만 아니라 법학생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주는 기회제공의 장소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김태형 기자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서울 캠퍼스 학군단 건물 오른 편에 있는 담을 말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불리워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외대의 슬픈 이야기 시리즈 중 단연 으뜸으로 불리고 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매년 새학기 가 되어 신입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등록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의 얘기다.

30년 전 신입생이 경험대의 '크리온관' 건물을 위해 건물인 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크리온관을 향해 걸어 갔다가 '통곡의 벽'에 막혀 앞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슬픈 전설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미래의 후배들에게 다시는 '통곡의 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넓은 캠퍼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문화부

«»인캠퍼스 '96동연제

학생회관을 지키는 사람들의 하나되기

한총련 · 동아리 강화 위한 한마당



1년동안의 사명을 정리하고 그동안 동아리들이 쌓아온 전문성을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한 동맹제기 막을 내렸다. 사진은 폐막식 공연 모습.

2천 5백 동아리 학우들의 축제 '96 동맹제 한마당'이 지난 10월 28일(월)에서 31일(목)까지 3일간 학생회관 앞마당과 하나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하늘사람의 축하비행으로 개막을 알린 이번 행사는 많은 동아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한껏 선보였다. 특히 빛모습은 동맹제 기간인 30일(수)부터 11월 1

일(금)까지 제 2회 빛모습 창작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영화제는 빛모습의 창작적인 '아름다운 말인가, 거짓'과 '탐 건' 등에서는 소외된 자들과 남쪽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현실을 다루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대학생다운 진보적 생각을 표현하였다.

또한 민족무예 동아리인 한타에서는 동맹제인 30일(수)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제 4회 가을을 정가시연을 가졌다. 이번 시연은 중국의 풍수나 무술, 일본의 가리나데 정도 등에 비해 정경 우러나는 소름돋는 학생들의 의식을

지적하고 무예를 계속해 나가면서 민족무예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지 막날인 31일에는 오후 5시 후생복지관 교직원 식당에서 폐막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동아리들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화려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행사 뒷마당은 빛모습이 준비한 연대 행진 열성을 함께 시청하고 구술학우의 편지글을 낭독함으로써 동맹제의 취지인 한총련 강화의 의지를 모아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행사와 관련 동아리 연합회 회장 정태준은 "이번 동맹제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사명을 정리하고 그동안 동아리들이 쌓아온 전문성을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준비한 동아리연합회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현기 기자

«»리미트 애니메이션 상영회

반전속에 갇힌 일본의 위선

순수만화를 지향하는 그림사상에서는 동원제를 맞아 10월 29일(화)과 30일(수) 양일간 정보 산업관 206호에서 제 1회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기법을 보여주는 자로로 보충할 수 있는 일본 만화영화 뿐 아니라 수묵화기법을 도입한 중국의 독자적인 '수묵 애니메이션'도 선을 보여 다채로웠다. 상영제 기간 중 첫날인 29일(화)에 상영한 '반전속의 위선'은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향으로 평가되는 다다하타 아사오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을 선풍하게 파헤쳐서 그려낸다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작품이지만 반전영화라는 측면에서 상영되었다. 세계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전쟁에 나가 소식이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처참하게 죽은 어머니를 둔 세이타와 여동생의 정통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여동생 세이타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순수함이 세이타의 죽음에 이르러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다. 형사와 관련된 변장(자전·참고)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작품이지만 일본의 피해의식을 보여주기 보다는 전쟁이 주는 참상을 알려내고 있다"라고 상영의 의미를 밝혔다. 이 외에도 짧은 윤리나형식으로 구성된 '비공인'과 '공각기동대' 등 인간의 참혹함과 기계와 인간에 대한 비판을 다룬 작품들을 상영하였다. 이번 그림사상회 제1회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계기로 학우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향연 한층 더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서윤경 기자

생활 시평

두가지 인간형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 각각의 개성으로 사는 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팔팔이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부끄러워 이야기해 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데 열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끔 내적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 때문에 최근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 이전에 못 본 듯이 화려한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학 광고이다.

대학의 총장이나 동문준 유망 인사가 나와 "꿈을 시작하는 곳" 등의 말로 자신들의 대학을 자랑하는 것이다. 거대하고 아담하게만 보이는 캠퍼스, 모두 예쁘고 잘 생긴 학생들, 한없이 자신감 넘치고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수님, 대학생활이 보이기 전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교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본교로 광고를 통해 학생 유치에 힘쓰고 대외적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다.

분명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담하고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친근한 캠퍼스,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수많은 비둘기'가 당신을 부릅니다 (서울 캠퍼스). '깨끗이 정리된 넓디넓은 캠퍼스와 마치 신 같이 아름다운 건물들' (용인 캠퍼스). 그런데 단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할 필요도 있을까? 있었고 남만 있는 캠퍼스만을 꿈꾸며 온 대학에 정기도 잘 안 들어오고 참관하려고 있는 건 고공하고 때때로 멋진 일대대도 그 학생들은 끝까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받았던 온갖 수식어들을 마음에서 두고 있을지, 그리고 그 돈으로 참관 바꾸고 교수님을 더모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랑에 비하면 사람들도 많고 있다. 당신들이 자랑을 늘어놓는 말 몇 마디에 들은 돈이든 다른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는 몇 가지 더 만들 수 있다고.

시청각실 상영영화

네 멋대로 해라(1959)

감독: 장-뤽 고다르
주연: 장-폴 벨로노, 진 세바그
제국: 영화모임 '올림'

세계적으로 새로운 영화의 물결을 몰고 온 누벨바그는 트루프의 작가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큰 영화적 성과는 '네 멋대로 해라'이다.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영상과 고다르는 손쉽게 자신의 영화적 사고와 일치시키면서 만들어 냈다.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는 할리우드 B급 영화에 대한 형식주의, 할리우드 정통영화의 파괴이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정서적 장르를 파괴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 영화로써 비판을 하고 있다. 고다르는 장르에 기반을 두면서 장르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고다르의 속의 바네트화되어 있는 제도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영화를 보는 순간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속에서 영화 속의 사로 뒤떨어지거나 '술은'을 찾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절전의 장기로 초래할 것이다. '네 멋대로 해라'는 영화가 '나'를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며, 영화 스스로 어떻게 영화를 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일문서이며, 순전한 영화공의 영화이다.

문화응답샘



알려지지 않은 미국노동운동 이야기

이대성 옮김/책값12,000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억압과 착취를 당한 계급이 있다. 바로 노동자들. 이 책은 그들의 역사를 그려낸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외국인으로 몰려 사형당하게 되자 이 영화는 할리우드의 정서적 장르를 파괴하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 영화로써 비판을 하고 있다. 고다르는 장르에 기반을 두면서 장르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고다르의 속의 바네트화되어 있는 제도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영화를 보는 순간이 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속에서 영화 속의 사로 뒤떨어지거나 '술은'을 찾기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절전의 장기로 초래할 것이다. '네 멋대로 해라'는 영화가 '나'를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며, 영화 스스로 어떻게 영화를 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일문서이며, 순전한 영화공의 영화이다.

한국현대대표 소설선

임형택 등 역문/창작과 비평사/8,000

역사는 이 책을 통해 20세기 한국 소설의 중추라고도 할 수한 수확물을 총 정리해보고자 했다. 위기의 시대, 열악한 환경에서 고뇌하는 작가들은 대개 상업주의적 통속화의 유혹을 단련형식의 광범함과 광란의 대서정으로 뿌리친 것이다. 신채호의 '웅과 용의 대결', 이광선의 '오발탄', 오유년의 '가난한 형제'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국현대대표소설의 정리를 통해 역시 사라지는 시대에 대한 정리로서의 의미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준비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이름

김호식/창작/10,000
근대 이후의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의 존경과 찬양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과 그러한 위기의 생존 인사들을 인물로 그려낸 책이다. 작가는 초상의 주인공의 형상적인 모습과 표정의 이 두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들의 정신적 사상의 깊이를 화선지위의 공간에서 느끼게 하였다. 해방직후의 민족지도자 김구, 독립운동 및 투쟁의 거구인 안창호, 의외의 침략을 자절로 향하는 선비정신의 실천자 황 현 등 20명의 초상을 담았다. 이 책 속의 초상화들은 변

밀하게 살펴볼 것도 없이 그 대상들의 면모를 역사적 지식이나 지·감각의 관계로 잘 알고 있는 비평가에게 감동과 묘미와 표정의 초상화로 신선한 감동을 맛있게 할 것이다.

이중의 영화

제80일

감독: 자코 보 도마엘
주연: 다니엘 오페이루, 피스켈 뒤펜
(토도의 천국)이후로 만 5년만에 자코 보 도마엘이 만든 작품으로 정체를 상실하고 아파하는 한 청년의 남자와 장미의 외양을 갖춘 한 남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교통사고를 계기로 우연히 만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서서히 동화된다.

감독은 이 두 사람의 정겨운 시선의 교류를 잘 잡아낸다. 할리우드 영화와 보편 장면에 이르는 한 작품들과 다른 도마엘의 따뜻한 인간성이 느껴지는 영화이다. 또한 칸영화제에서 금공으로 남우주연상을 얻은 영화로써 장면에 이 문제의 개인적인 차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작이다.

이중의 비디오

를 메이트

감독: 피터 에이츠
주연: 피터 포크, 디비 스위니
피터 포크가 백살난 연기를 선보여 '뉴욕 포스트' 등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집을 철거하려는 경찰과 소동을 부리는 등 고집불통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한 75세에 된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갈등을 그린 가족영화이다. 이 영화는 그러한 갈등을 알아버리고 손자간에 감정의 교감으로써 과장없이 차분히 풀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사물'로 잘 알려진 피터 에이츠의 전체를 확인시켜준 영화로써 놀랄 만한 기교나 화려한 영상은 없지만 뜻밖의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영화이다.

구분	이름	점수	지역
월(4일)	무적자극 (W1,300)	두부만장제 (W1,300)	돈독부담 (W1,400)
화(5일)	수제비, 감자국 (W1,100)	죽장 (W1,200)	부대찌개 (W1,400)
수(6일)	삼겹살 (W1,400)	쇠고기밥 (W1,400)	대구계탕 (W1,400)
목(7일)	쇠고기국밥 (W1,400)	탕수육 (W1,300)	삼겹살 (W1,500)
금(8일)	순두부찌개 (W1,300)	참치김치찌개 (W1,300)	오징어덮밥 (W1,300)

* 위 식단은 월동준비기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식	중식 I	중식 II
월(4일)	북어떡볶이 (W1,300)	쇠고기갈매기 (W1,800)	비프스 (W2,000)
화(5일)	감자국밥 (W1,300)	한우국밥 (W1,800)	밀쌈 (W2,000)
수(6일)	소고기부대찌개 (W1,300)	조기제육 (W1,800)	족발 (W2,000)
목(7일)	소고기부대찌개 (W1,300)	도가나미 (W1,800)	콘보이 (W2,000)
금(8일)	연두부찌개 (W1,300)	장두부찌개 (W1,300)	블루스 (W2,000)

(제국: 충주 후생·생활협동조합)



세 제민속학술문화축전 평가

완전한 화합을 위해 부족을 채워라

다음 행사를 위한 완전한 마무리 있어야



지난 13일(일) 본 공연을 끝으로 세민축전 막을 내렸다. 오랜 행사준비로 성황리에 마치는 했으나 몇가지 과제를 남겨 다음 행사를 위한 확실한 평가가 필요하다.

해마다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공연들이 과를 비롯한 여러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공연은 학생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고 혹은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수많은 공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또 외국에 대하여는 본교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세제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축전)이 지난 10월 1일(화)부터 13일(일)까지 용인캠퍼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다. 긴 세기 동안 한국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혼돈과 인류 화합이라는 일관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예년과 달리 '영화제'가 새롭게 추가된

이번 세민축전은 전시, 공연, 심포지움의 네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행사에 대한 평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음으로 마련된 영화제에서는 비록 개인사정으로 변명주(영화감독)씨 등의 강연 등이 취소되고 한국관에서의 영화 상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 등의 몇몇의 시행착오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준비위원회측은 이후 영화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회는 무엇보다도 장소 선정이 좋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대학교에 마련된 전시회장이 본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로 인해 전시기간이 이월해서 하루도 줄어들어 만약의 사태에 있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줘 아쉬움을 남겼다. 공연은 세민축전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많은 준비가 있었음을 이곳저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는 욕심 때문에 약한 면도 없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움은 인문대와 경상대 학생들의 노력으로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소정의 목적을 거두고 막을 내렸다. 세민축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가장 많은 우려의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비어문제제의 참여 정도와 방식이었다. 이점의 세민축전이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이나 노력으로 보여주는 행사에 그쳐 어문계열이 아닌 경상계열, 자연계열 등의 과가 많은 용인캠퍼스에서의 세민축전은 단지 반쪽행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장인 문석규(동학·인도어 4)군은 '비어문제제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포지움을 비롯한 영화제 등을 통해서 참여의 기회가 이전에 비해서 많았었다. 그러나 중앙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내용의 마련은 비어문제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세민축전을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 나타났던 착오들을 다음에 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평가가 완전한 것은 후 구제적인 대안이 마련될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혼돈에서 화합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부

반 학교 문화제

교육이 아닌 락에 대한 담론

일괄적 학교교육에 대한 반기



네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어라. 바로 오늘이! 학교의·비상식적 교육에 한(恨)을 품은 이들이 축제에 왔었다. 축제의 이름은 '반학교 문화제(반문화제)'. 그들은 하나같이 '주류집단의 정복'을 얘기한다. 학교의 교육 역시 그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의 축제는 3일 동안(28일부터 30일까지) 펼쳐졌고 온 캠퍼스를 '락'과 '토크'으로 휩쓸어 갔다. 반문화제 공동위원장 유종철(사상예대 학생회장)은 31일은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바로 외대인의 전방적인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시작이다. 대외문화에 대한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행사의 배경을 설명한다.

축제 첫째날 개막공연, 서태지 영상프로젝트. 무엇보다도 이날의 최대 관심사는 서태지 영상프로젝트다. 반문화제 준비위원회는 기존 음악계의 지배적 가치관을 뒤엎은 서태지를 '전복'의 이미지로 부활시키며 첫날밤을 지새웠다. 축제 둘째날은 담화를 즐기는 날. 영어와 학회 '여명'과 '영'(VITAL)의 심포지엄 '교육상장'이 대학원에서, 교사이면서 시인인 김진경씨와의 얘기마당 '자유로운 삶에 대

한 추구'가 학생후계실에서 열렸다. 축제 마지막날은 '락 페스티벌' '여기 두 마이내리더(미주꾸리)가 만나라'를 내걸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팔레 홀' '퀸민하' '이스크라' '알엔에' '파우더 밀' '연수'의 크라이비' 등이 참가해 저장의 길이보다 높은 목소리를 지향하며 참가자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3일간의 축제는 교육에 대한 담론보다는 오히려 '락'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구나 첫날 공연에는 본교생보다 오히려 중·고생들이 더 많이 참가하는 이번(?)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종철 "서태지를 단지 '락'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영상프로젝트 우리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했을까라고 말하는 어려웠다"고 평가한다. 락의 지향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락을 저항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락을 통해 현재 대외문화의 외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축제는 끝났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을 시작하겠다는 의의의 출발이다.

김태형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살아 숨쉬는 열린 영화를 꿈꾸며

제 1회 인권영화제



대한민국에 최초로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사실 각박한 경쟁속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안이란 알박한 상업주의와 '영화' 오락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오직 영화만이 '영화'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회에 '인권'을 주제로 공개하여 우리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뜻깊은 일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요즘 영화를 함부로 가위잡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태도에 대한 의견들이 차이를 보이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큰 문제는 아직도 검열의 쇄신으로 예술가와 인권운동가들을 구속하는 어두운 나라임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엔 상영할 우리나라 상영권은 3편이다. 노동자 뉴스 제작단이 만든 '별고지'는 95년 12월 15일 새벽, 전국 구수해 해고노동자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 농성장에서 한 해고자가 목을 매고 자살했다. 그는

91년 대우정에서 해고된 방영록에 노종자였다. 이 작품은 자살을 모르는 복지부편을 연대별로 그려나간 것이며 정승일 씨가 만든 '그리운 얼굴'은 95년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수감생활을 하는 450여명 양심수 가운데 100여명의 얼굴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후문영양에서 제작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은 93년 몇몇 장거수의 가족들 출소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돌아가는 삶과 그들의 체험한 현대사의 줄기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회의 인권의 의식이 불거지고 표현의 자유가 구가되어지길 바란다.

영화제의 예산을 조달하고자 개인(1만원) 및 단체(5만원)별로 후원모집한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후원회원카드와 상영될 영화제시를 드립니다.

예금주: 서순식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9388/저리일 110-20-342272

문 02-704-7401/715-9185

박 소 연

〈영화모임 빛모습〉

문화단신

서울

외탈 정기공연 열려

예로부터 삼 속에서 풀이가는 민중의 놀이형식인 마당극 한 편이 지난 31일(목) 노원극장 한 모퉁이에서 펼쳐졌다. 외탈(가면극 연구회) 정기공연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오스만의 의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시위가 총으로 형상화되면서 시작됐다.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로 억압과 학대를 감수해야 했던 오스만을 통해 마당극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생태도의 허구성을 고발한다.

후은 날에 속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출연자들의 연연과 그 연기만큼이나 적극적인 관객들의 호응으로 더욱 활기를 띄웠으며 마당극 특유의 해학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신방과 보도사진학회 제 10회 전시회 가저

상식적인 거리 사진전시회로 천축제 신방과 보도사진 학회가 오늘(4일)부터 6일(수)까지 대학교 예술회관에서, 8일(금)에는 교내전시실에서 제 10회 전시회를 갖는다. 제 3계개의 아시아가 서구에 의해 근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인 '식민지 근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 근대성을 다룬다. 정성진 학원과 현상의 우리모습을 담은 이번 행사에는 외세 특히 미군의 문제를 부각시켜 다루어 이와 더불어 정신적 측면이 우리들의 모습에 투영되는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를 카메라에 담아낸다. 학회장 조영환(2)군은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정반대인 반성을 촉구하며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시회 취지를 얘기한다.

용인

하안공간 졸업 미전 가저

순수미술 동아리 하안공간이 10월 28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5일간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졸업미술품 전시회를 열었다. 4학년 작품들 중심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물화와 정물 또한 노근 등 여러재료들 유화그림과 함께 다양한 설치미술 작품 등 총 40여 작품이 선을 보였다. 특히 선배들의 모습을 후배들이 직접 그린 캐리커처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선배후배의 돈독한 정을 보여주었다.

충거학생회 여성문화제 개최

성령들 사회를 꿈꾸는 '96 여성문화제가 충거학생회 주관으로 10월 28일(월)부터 31일(목)까지 후북관 4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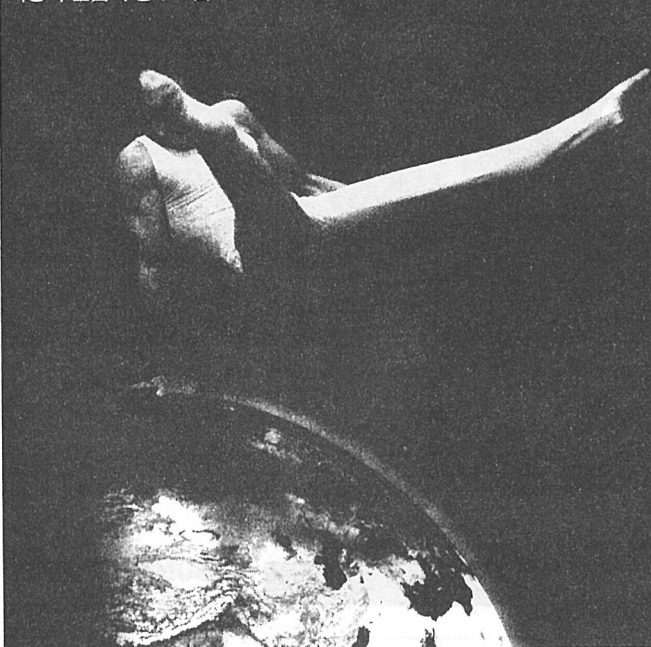
이번 영화제에서는 기록영화로는 처음으로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많은 사람들의 제박이 모으고 제작된 변명주 감독의 16mm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낮은 목소리'와 정신대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연극 '반쪽 날개'는 날아온 세' 등 5편의 영화와 연극이 상영되었다.

또한 하루를 나름대로의 대안과 문제의식을 갖는 기회로 영화관람을 공모하였다.

특히 11월 5일(토)에는 영화평론가 유지나씨의 '여성'과 영화, 그리고 예술'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강연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거학생회지창 이영인(사학·영어 4)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성취부족을 일깨우고 성령들의 관점은 무엇인지 환상 하루를 나름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과 믿음의 동부그룹



끝없는 도전으로 세계의 벽을 넘는다

사랑과 믿음의 기업 동부가 세계로 도약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되어 고성과 사회에 항상 믿음음을 주는 기업은 일가"라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27년간을 끊임없이 더 좋은 제품생산에 위해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동부-건설·제강·화학 등의 기간산업에서 금융·보험·중국의 종합금융과 신소재·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오늘도 동부는 고성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불굴의 투혼으로 세계의 벽을 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한총련 전국동시 총궐기 대회

공안탄압 분쇄, 민주기본권 쟁취 투쟁호소문 발표

11월 12일(월) '공안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동시 총궐기 대회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영삼정권 탄압과 민주주의 침범이라는 기치하에 전국 각 지역총련 및도 열렸다.

서울지역총련(서총련)은 지난 1일 오후 5시에 시청앞과 농대앞에서 거리선전전을 포함한 거리시위를 벌여왔고, 전국 17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3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가졌다.

서울지역이 도인 이 자리에서 신명비(상명대 총학생회장) 등은 "모든 민주주의 요구는 정권의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 무참히 묵살되고 있다. 분민독재 김영삼정권을 장년과 같이 전도시켜 신명비와 함께"라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거리 선전전을 벌였는데, 나뭇가지에 나뭇잎을 붙여 '민주주의'를 써서 나무를 가꾸는 행위를 벌였다. 또 길은 남 부로 앞인경로에서 숙해 있는 경동부지구 조각(조각가 김기호)을 비롯한 총학생회장 김영삼의 탄압(총학생회장 김기호)과 김대중, 김대중 등에서 한총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본로 앞인경로에서는 경찰 7개 대가 캐피로고 2대를 앞세우고 경동부지구 문화제를 방해하고 수배자를 검거

하기 위해 정문을 막고 학생들을 검문검색했으나 결의대회와 문화제는 무사히 치렀다. 청주대에서는 오후 4시에 열린 총학생회장 총궐기대회에서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공안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마치고 총학생회장 학생들은 거리선전전을 할 예정이었으나 집회를 원천봉쇄로 각 학교별로 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한편 경북대 대강당에서 열린 경북대 총궐기 대회 도중에는 백관진 3백여명과 정경이 최부탄을 쓰며 대강당에 난입해 학생들을 폭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학생 한명이 강당에서 뛰어내려 현재 중태이고, 4명의 학생이 연행되고 수십명의 학생이 부상당했다. 또한 전남대에서는 1200여명의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근조 민주주의'를 알리는 상 여극과 공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한총련은 투쟁호소문에서 '김영삼정권의 탄압은 정권의 위기에 처한 만민이나 국내 달하고 있다. 한총련과 해협동, 대규모 군사헌법을 통한 정경행동, 노동법 개정 등의 민주주의와 통일 시기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밝히고 '한총련 백관학생과 4천만 국민들은 한민도 평화 실현과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을 호소했다.

김정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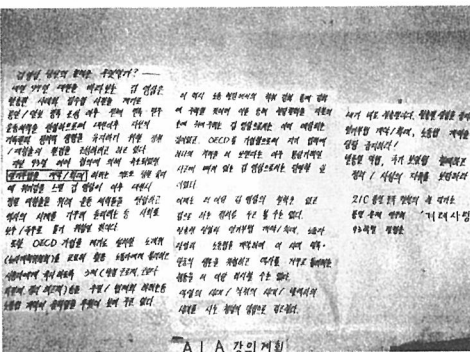
지난 3일은 학생의 날이었다. 각 대학들은 학생의 날을 맞아 갖가지 행사를 준비했다. 각단위별 학교들은 행사를 위해 오랜 준비를 했고 하나의 장소에 운집하게 돼 있었다.

본로 앞 캠퍼스에서 동부총련 학생의 날 기념문화제를 지난 1일(금) 열었다. 타학과 학생들은 행사 시간인 5시에 맞추어 하나를 발걸음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학생의 날을 기념으로 운인 시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참석을 할 수 없었다. 운인 경찰서의 협박 전화가 참석을 저지해 했던 이유였다.

한편 교문앞에서는 의대로 향하는 승용차와 화석배스를 모두 정문앞에 막았다. 외대 학생들은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리라는 정경의 이유였다. 시간은 점점 더디고 갔다. 이쯤 7시가 되었으며 거꾸로 모인 동부총련 학생들이 경찰들을 가득 메웠다. 경찰로 한계는 모였었다. 작은 자연대 강당에 학생들이 열기로 가득 메워진 것이다. 비록 몇몇 학교는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문화제는 이렇듯 시작되었고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정문은 외대인들에게 있어 질 수 없을 것이다. 기자는 몇몇의 외대인들을 찾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한총련(학·이)은 10년여 처음으로 문화제 행사에 정문을 열었다. 전대학 10대의 학생이 산배되어 이루어 놓은 민주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탄했다. 또한 학교당

우리 손으로 학원을 지켜내자

학원을 진리의 상아탑으로



AIA 강의계획서

국과 경찰들은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학교를 불시에 검문하고 학교 가를 파손하는 작태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회와 관련 '학생회는 학생들의 복지를 이의를 물론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도 아울러 겸하고 있다'며 그러나 요즘은 학생회 자체가 없어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사·영)과 1) 군은 그녀의 질문에 대해 '학생 운동은 때때로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 발달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날의 정문은 사태를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의 날 행사의 관련 '요즘 우리 나라의 무

정문과 대학문화로 정착하는 점은 어렵다'며 '집회나 행사가 너무 과격하게 흘러가는 것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한총련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이나 학교생활에도 좀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지 바라'며 확신을 가지고 대학생활에도 계속해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은(동양·중국) 2)은 "검문하는거 보고 솔직히 그 쪽에서 필요하니까 그러니 했어요. 그치만 학교 행사에 대해 그렇게 검문했다는거 듣고 분개했죠. 그리고 학생의 날 행사는 당연한거 같아요. 그 검문은 우리 학생들은 물론 어떤 주민주권도 불편을 준거 같아요."

한총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거에 참여하자는 질문에 "단연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라며 웃었다. 그리고 한총련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한총련은 우리 모두의 단체인데 일부의 것이 되어 가는거 같아 아깝다'며 좀더 확실히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외대인들은 이번 정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정부의 학원침탈은 한총련간부인 누구건 간에 학생일에서는 결코 방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했고 한총련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우리모두 한국대학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염혜민 기자

국가안전기획법 개정 동향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돼

2일 시민대회 열려

지난 20년 정치국에 당시 일부 독소조항이 개정됐던 안기법에 대한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년 당시 국가는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불교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부패정비위원회가 안기부에게 모든 예산 지출과 예산지출내역을 국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안기부예산·업무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치 권위자를 신장하여 안기부장이 안기부 직원들의 정치권에 행위를 금지시키고 안기부 수사관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남용죄를 신설하였다. 당시 안기부법 개정 조치는 정치국에서 여야 반정부로 통과 됐고 언론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이후 김영삼 정권의 보수화경향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김대중 연대 통일 투쟁과 각종 무장간첩 사건 등으로 형성된 공안분위기를 틈타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주장을 하면서 안기부법 독소조항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안기부 출신 의원들의 경우로 안기부법 개정 특별 지원금을 받는데 반박하지 사회 각 세력들에게 화유와 협박을 통해 '개혁의 명분'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논리는 안기부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불교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총련 사태와 북한무장간첩 전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법 개정 움직임을 따라보며 많은 국민들과 재야단체들은 안기부의 정치 개입, 인권 침해, 직원 남용 등의 과거와 잘못된 모습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국영 안기국의 권기혁씨는 "집권 당이로 오면서 안기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움직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안기부의 권한 강화는 오히려 안기부의 위상에 맞게 이룩하지 아닌 대외정비 수습이나 경제 소비들을 수습하는 정권보존행위 강화에 한다'며 안기부 체질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한편 안기부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재야단체들은 지난 2일(토) 서울 종로 공원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안기부의 권한강화 철폐를 요구했다.

대내 학교침탈, 서총련 의장 회의 도중 연행

박병연(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대변인) 서울지역총학생회장(서총련)의 의장을 비롯한 서총련 간부 13명이 지난 10일 28일(월) 오전 10시 40분경 새록대에서 회의 도중 연행, 구속수감됐다.

'법정화한 통일대추'를 이끈 협의와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을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 구속경고에 발부해 수배중이던 박병연 서총련 의장은 새록대 총학생회에서 서총련 중앙집행위원장과 한총련 11월 1일 총궐기 투쟁 준비위원회의 의장을 하는 도중 불의의 사복경찰 25명, 전투경찰 200여명에 의해 연행됐다. 이와 관련 같은 건물에 있던 언론소련협의회 소속 기자 7명과 예비회 협의의 학생 2명도 같이 연행됐으나 오후 7시쯤 전원 훈방조치됐다.

이후 새록대 총학생회에서 서총련 의장 연행 규탄집회를 갖고, 언론소련협의회에서는 일간지 기자와 취재를 거부하는 대외보 선전과 함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서총련 의장을 비롯한 서총련 간부들은 장안동 서경경찰청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신문사 기자 2명 구속, 신문 발간 중지

지난 10일 16일(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과 기자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동국대 신문은 지난 10일 7일자 신문에서 '조나미'라는 낙서란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게재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 혐의를 적용해 편집장과 기자 1명을 구속하고 기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와 관련 10일 14일자 동국대 신문이 발간되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쓴 '불방한 공비이적지' 무사히 발송하세요. "복에 있어 우리 간첩(?) 몸 건강하길 바랍니다" 등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 총학생회 측에서는 "집행장 정경은 부당하게 구속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고 대학내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가로 막는 대학헌법 위반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는 교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고, 신문사측과 학교당국에 해임있는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없는 강제철거 강행

지난 23일(수)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송당마을 재개발 지구에 전투경찰과 철거용역업체 1천 8백여명이 철거된 21세대를 강제철거하려는 목적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철거 경계들의 폭력을 피해 지난 4일에 설치한 굴리(철거판)를 옥상에서 농성중인 철거민 23명에게 돌을 던지고 굴리(철거판)의 정기와 수도를 끌고 붙들었다. 이 중의 초장경 전담을 지령했다. 이런 극심한 공세에 맞서 철거민들은 화염병을 간혹 투척하며 30여시간을 견뎌냈으나 결국 달린과 삼한 부상으로 2일(목) 오전 11시경 전원 연행되었다. 이와 관련 주민 5명이 부산시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학생들과 함께 시민 선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해 갔다. 또한, 송당마을 철거민들은 29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는 수차례에 걸친 우리의 협상요구를 묵살했고,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게임 성공적 유치를 위한 도시미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런 대책없이 졸속한 강제철거를 지령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보전되어 있는 거주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의 철거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송당마을 강제철거와 관련 현재 14명의 주민들과 4명의 학생이 구속되어 있다.

VISION

선경인, 미래를 앞당기는 사람들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선경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21세기를 만들고, 21세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만들어냅니다.

선경은 이미 '선유에서 선유까지' 산업의 수직계열화체계를 구축, 종합에너지, 종합화학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과학, 신소재,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선경으로 오십시오. 21세기의 비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선경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길입니다. 선경은 21세기를 완성할 것입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최고 인재를 파견, 현지 전문가로 키우는 '파이오니어 포스트', 해외 비즈니스맨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 자체 경영자를 양성하는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미국 유수의 국제 경영대학원에 개설된 '선경 Thunderbird 프로그램', 파견, 파견도 사장이 될 수 있는 '사비기업가제도' 등등.

이렇게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는 선경의 21세기를 만듭니다.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선경채용담당실에서 연중상시로 입사면담은 물론 지원자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 대학 4학년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선경에 응시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경인재담당실 Tel: 02-2712-0222 Fax: 02-753-7401
Web Homepage: www.vision.co.kr
E-Mail: hr@vision.co.kr

SUNKYONG
鮮京그룹

전대기련 전국대학생 의식 설문조사

응답자 85%, 연대사태 경찰진압 강경했다

헌정권 성적표, 통일·서민경제·교육정책 등에서 학사경고 수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의장 경기대학교보사 편집장 전승수)은 지난 10월 17일(목)부터 25일(금) 까지 전국의 대학 신문사를 통해 3천여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총련에 대한 인식도와 통일·정치·경제 관련 의식설문을 펼쳤다.

총 32개 대학(서울 10, 경기인천 5, 대구경북 5, 충남북 2, 강원 2, 전북 1, 광주전남 4, 부산 3) 2853명이 응답한 이번 의식조사서는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이뤄졌다. 4개 분야 39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질문지법으로 진행되며 각 대학 신문사의 자체 분석을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일어난 한총련 통일대관련 정부와 경찰의 진압태도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경황. 정부 태도가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97년 대선시 야권단일 후보로 김대중씨가 출마해 여권후보들과 겨뤘을때 이회창씨만이 김대중씨를 이길 수 있다고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전대기련이 주최한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세대에서 벌어진 학생들과 경찰력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한총련의 폭력적인데도 무장한 경찰들을 뚫었다'는 언론보도는 다르게 응답자의 73.3%가 정부와 통일논의 독립상황과 과정진압이 폭력을 불러일으켰다고 응답했다. 특히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학생들을 지나치게 몰아부친 채로, 편파적이고 일색이었다고 비판했다.

한총련의 복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합의서 이행등의 주장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70.8%)라고 밝히고 있어 '한총련의 목소리가 복면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할 것'이라는 제도언론의 보도와는 다

른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한총련을 전국대학생을 대표하는 조직(44%), 총학생회장이 결성한 조직(31.5%)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연세대 통일대의 이후에도 한총련의 위상은 약화될 것(39%), 큰 변화가 없을 것(21.4%), 한총련이 더 강화될 것(20.8%)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총련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아는 질문에 별다른 변화 없을 것(39%), 다른 학생대표 조직 발생(22.4%), 비주류세력의 한총련 장악(18%), 비운동권 세력이 학생회 장악(18%)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총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한총련의 주장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있어서는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통일의 길찾기, 미국등 강대국과 이념적이지 49%

연세대에서 벌어진 경찰과 한총련의 큰 충돌은 해마다 진행해 오던 통일행사를 불리한 정부와 이에 대응한 한총련의 행사간행 과정에서 일어났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면서까지 통일행사를 강행했던 한총련의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한총련의 주장은 정당하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정세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88%에 이르는 학생들이 통일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41%)과 1국가 2정부 2체제, 즉 연방제도의 통일(31%)을 꼽았다. 학생들은 통일과 가장 큰 걸림돌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남북체제의 이념적차이를 들었다. 북·미간 관계

선이 통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통일의 절대적 기여(13%), 통일에 조금은 기여(45%),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26%),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4%)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북한 잠수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경했다(49%), 적당했다(29%), 미약하게 대처했다(15%)고 답했다.

김대통령 대선자금 사용 했을 것 95%

김영삼정부의 각종 정책중 통일분야를 가장 혹독하게 평가(50.5%) D 이하 학점 부여)한 학생들은 김영삼정부 4년의 각종정책들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교육정책(73%)이 (이하)와 서민경제(응답자의 80%가 (이하)에 대해서는 학사경고를 내렸다.

김영삼 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곧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지지정당이 없다고(56%) 밝혔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가 곧 특별사면으로 오래지 않아 풀려날 것이라고 52%의 학생들이 응답해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대선자금에 대한 질문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의 95%이상이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내 차기 대권후보는 누구일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회창, 박찬종 순으로 전망했다. 김대중, 김종환 야당총재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들의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야권 단일후보로 김대중 총재가 출마했을 시 21%

학생들만이 김총재의 당선에 찬성하고 야권단일후보가 출마해도 여권의 이회창후보에게는 패할 것이라고 24% 학생들이 응답했다.

경제모순, 재벌구조와 예측경제 때문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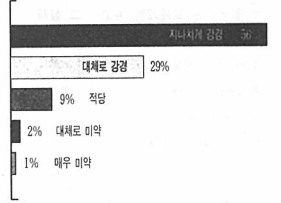
물가인상, 주식폭락, 수출저조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등 최근 경제여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정책 실패로 기인(46%)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등 강대국에 대한 예측경제(33%)와 재벌구조(30%)라고 진단했다. 학생들은 또 최근 OECD가입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부작용이 적잖을 것(30%)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의 '노동법 개정투쟁과 관련해서는 찬성(64%), 그저그림다(28%), 반대한다(5%)고 응답했고 교사, 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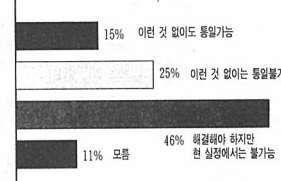
97년 권력교체기를 앞둔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알뜰한 연구들이 가득한 한 해이다. 특히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생활은 불안한 상태이다. 게다가 북한잠수함 사건은 사회를 반공, 안보이데올로기로 몰아가며 방위비 증액, 안기부 수사권 부활 등의 반민주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대학원의 현실적 진단은 사회전반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제시와 독주에 대한 경계였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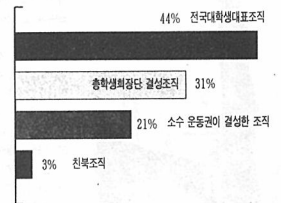
1. 연대사태관련 경찰의 진압 태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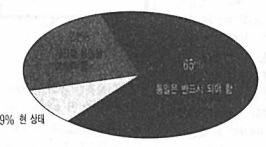
2. 한총련의 복·미 평화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 주장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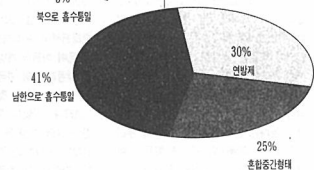
3. 한총련에 대한 당신의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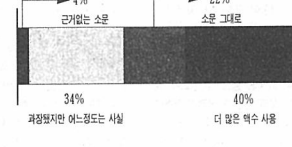
4. 남북통일 성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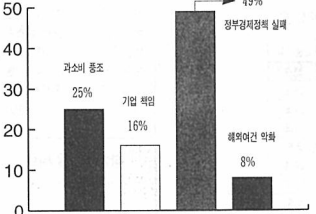
5.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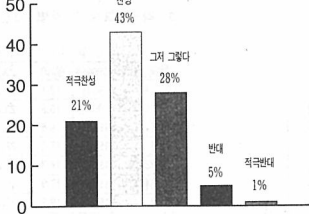
7.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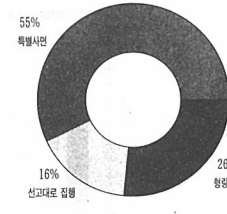
8.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을 낳은 가장 큰 이유는



9. 민주노동의 노동법 개정투쟁에 대한 의견



6. 전두환, 노태우씨 향후 처리 방안



포철, 세계 1위 철강사로 도약!

광양 5고로 착공

〈광양 5고로〉 착공으로 연간 2,800만톤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될 포항제철 - 1999년, 완공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 1위 철강기업이 됩니다.

〈광양 5고로〉는 혁신기술인 미니밀과 연계되어 건설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하이테크 제철소를 실현하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도약하는 포항제철이 21세기 초일류 글로벌기업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제철 세계 철강기업 최초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ISO 14001 제
65,770 평(200,000 평) 확보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글 실는 순서

1. 밀려드는 교육개방 파고... 그 실제
2. 예상되는 진출영역, 계열, 나라 - 그 현장을 찾아
3. 지상논란- 불붙는 교육개방 찬·반 논쟁
4. 설문조사- 의대생, 교육개방 이렇게 생각한다
5. 도마위에 오른 의대는...?
6. 교육개방, 이렇게 대처하라

'대학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다. 오는 2003년이던 대학지원자와 대학정원의 수가 같아지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지원자가 적어질 것이라고 한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한다는 얘기가. 기가다 전입학 제도의 확대, 대학실질준학주의 도입은 경쟁력을 갖추고 특화되지 않은 대학의 도태를 부추길까 봐 걱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대학은 우리끼리의 '도토리 키재기'에서 세계와의 힘겨운 승부를 겨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고등교육부 대외개방계획'에서 내년부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토록 허용, 교육개방의 빔장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또한 96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1개 대학씩 외국대학의 국내상학이 허용되고 2000년대에는 교육개방의 문은 활짝 열린다.

고등교육 개방조치와 함께 일어나 많은 외국대학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80년대 초 외국대학의 진출을 허용했으나 상당수의 외국대학들이 초

● 교육개방, 그 소리없는 총성 ①- 밀려드는 교육개방 파고 ... 그 실제

원격 교육시대 개막...교육개방 빔장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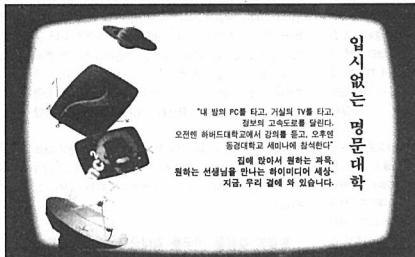
세계화·정보화 앞세운 고등교육 침투

기후자자본이 과다하고 동문·동창회를 중시하는 독특한 문화를 뚫지 못해 현재 한국 소수의 외국대학이 존재하는 일본의 경우는 낙관적인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방의 물꼬가 터질수록 엄청난 수의 외국대학이 밀려들 것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있게 들린다. 본인의 실력보다는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종토나 지금도 졸업생수가 수백명정도의 외국대학 출신자들이 시카고 학파, 버클리 인맥 등으로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주장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이에 본보는 이번 기획을 통하여 교육개방의 본질과 이에 맞서야 하는 우리 대학의 현실, 그리고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현재 우리가 주위에서 듣고, 보는 교육개방의 여러 단면들을 종합·분석하여 교육개방의 실재를 알아 보고자 한다.



임시없는 명문대학

위생방송원격교육시대라고 한다. 각 대학들은 '정보화'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 등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위해 한국인을 앞세워 송파구 가락동에 국내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스콘신주립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도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어 매릴랜드대학은 이미 한국에 진출해있는데 원래 미국 방송의 후원아래 미국인들에게 방송을 개설해 미군과 군속 가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유층 한국인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다. 또한 93년 12월 20일 문을 연 '코리아' 라디오학원은 교육개방 뒤 모스크바대 한국분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미리 문을 열어 둔 경우 모스크바대 한국분교 7명이 출강하고 있으며 학원을 수료한 학생은 모스크바대로 유학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한편 외국대학이 우리나라 사립대와 다양한 형태의 합작형식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하여 외국대학의 교수와 우리 대학의 교수를 합쳐서 강의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또, 외국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하여 외국대학의 교수와 우리 대학의 교수를 합쳐서 강의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또, 외국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 '분반의 날'

0... 유치원이 세계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학부제를 실시했다. 시간은 흘러 분반의 날. 원장 할 "한글 타독한 아이는 기고 싶은 반 가고 나머지는 나머지반으로 가세요."

원생들, 실시 취지에 맞게 적성에 맞게 정공산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자, 원장이 정체를 하며 하는 말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는 그런 조항은 없으니 논의를 할 차례가 없다."고 하더라. (윤)

0... 새벽 여명을 맞으며 '해운대 바닷가에는 최후의 날'이 터졌다. 바바바바바. 그러면서 쇠와이프가 부딪혔다. 제복 제복. 25일, 주운 겨울을 보내야 할 따뜻한 방 한 칸을 사람들에게 03이는 이렇게 했다. 국민은 03이 보고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기는 안 나오면서 03이는 왜 지구 우리의 시민들을 찾아내려는 하는걸까?

해운대 송담주인 여러분, 03이 찾아내고 청와대로 가서 삽시다. (영)



0... 참흥원(참치나라대학 총학생회장)의 대변인, "서울대학교의 호리호리한 미남" 참치가 멸치를 좋아하고 경계를 줄이고 있으며 전에는 참치원과 친했던 둘새끼와 그의 출가 기념품은 백골함지에 의해 골라졌다. 또한 독재 참치는 "타이 폭죽과 콩대 빠가 뛰어나는 참치(참치원 대표)"를 잡아 참치(참치원 대표)를 만들 계획에 있어 시련이 있다고 토미(참치원)는 전한다. (정)

참치 선물세트



내년부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는 등 교육개방이 본격화된다.

국내에서 외국학위를...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미국 K대 교수 김의석.

미국 K대학은 물론 태평양 건너 한국 모태대학 영성과학실이 어두워지고 김의석 정면의 대형 TV화면이 밝아졌다. 곧 화면에 교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강의가 시작됐다.

이 장면은 '학교정보화'의 이상적인 모델 중의 하나. 이제 그 꿈의 세계가 대학 캠퍼스안에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 5월 고려대는 국제원격영상시스템을 갖춘 영상교육센터(GVC) 개소식을 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국제화실의 문을 활짝 열어 원격영상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몇군데 있지만 원격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대학과 공동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려대가 처음이다.

송실대는 신원 IBC와 공동으로 원격화상교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국민대 전자통신과는 인터넷 통신대학을 내년에 선보인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화상교육도 목전에 다가왔다. 지방 8개 대학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대학연합'은 한 대학에 위성방송분부를 설치, 8개 대학에서 동시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유명대학과의 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대학과 원격화상교육을 한다는 방침.

이처럼 각 대학에서 우후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국제화·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정수를 들고 환영받을만 하다.

그러나 '국제화·세계화'라는 대의(?) 앞에서, '적자생존'이라는 명분때문이라 고 치부하기에 여기에는 너무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교육개방'이다.

세계화·정보화 논리로 변장한 교육개방

일반적으로 교육개방은 크게 4영역으로 나뉜다. △국가간 공급의 개방 △소수자 아동의 개방 △상업적 주체의 개방 △노동력 이동의 개방이 그것이다. 앞에서 나열했던 위생방송 시대 및 원격교육 시대의 개막은 바로 '국가간 공급의 개방'에 속한다.

지국국민이 외국 방송·통신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간 제한조치를 철폐해 원격교육시장의 접근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 5·31교육개혁안에 담긴 '외국아전용 방송' 실시 계획도 이 부분에 대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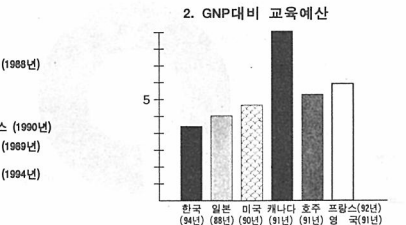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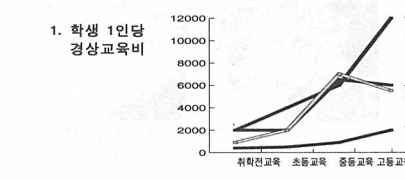
외국 '분교' ...삼륜준비반로

외국교육자본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식으로 진출 또는 일반화원을 설립하면 고등교육기관 분교를 설치하는 경우는 '상업적 주체'에 속한다.

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기관에 교육과정·학사행정·교육방법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5·31 교육개혁안에 담긴 학교설립준칙주의·학점제한 철폐·학제제 자유화·학생도입정원 자율화 등의 조치는 이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카고 대학은 94년에 프랜차이즈 시스템형태로 한국에 진출하기

도 표로 보는 한국교육의 경쟁력



3. 각급 교육 기관별 교원 1인당 학생수

구분	년도별	취학 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1994년	21.0	29.5	23.2	34.2
이집트	1990년	12.1	22.9	18.2	26.8
인도네시아	1989년	16.8	23.3	12.9	21.8
티모르	1990년	16.8	30.4	23.9	21.8
페루	1990년	27.1	28.1	20.9	2.8
이탈리아	1989년	14.3	12.2	9.2	26.4
아르헨티나	1988년	17.9	19.3	7.5	12.7
일본	1990년	19.9	21.1	17.1	9.9
독일	1989년	20.2	17.7	13.6	8.5

(단위: 명)

비둘기철판

이문 별

□ 알립니다

- 포항제철 고등교육 동문회를 합니다.
- 때: 11월 8일(금)
- 곳: 노인정
- 대상: 포항고 1기부터 13기까지 중·고교사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카니발을 준비하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 (포항고 카니발 추진위원회)
- 97년 이철교와 학생회장 합칩니다.
- 대상: 4학기 이상 필한 자
- 때: 11월 4일(월) - 8일(금)
- 대관은 누구에게요?
- (불교과 선거관리위원회)

왕 산 골

□ 축하합니다

- '남영아 생일축하!! 그리고 사랑!!'
- (형동동과 일동)

□ 알립니다

- 지난 취업포럼(10월 28일) 3년의 화해와 취업 현황은 96년 2월 현재 기준으로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미성불학과의 경우 96년 10월 현재 전체 취업률은 85.7%로 나타나 있음을 해당학과에서 통보해 왔습니다.
- 산악회에서 아마다불람 원정대를 조직하여 네발로 떠났습니다.
- 때: 11월 20일(수) - 12월 13일(금) (24일간)
- 곳: 내일 왕골, 금부 하마라리.

에베레스트 산군, 아마다불람

• 11월 25일에 최자항군이 군대 갑니다.

보내기 전에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한국외대 신악회)

• 11월 25일에 최자항군이 군대 갑니다.

보내기 전에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독일어과 학생회)

•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운 지영이만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영원히...

일본에서 보냅니다.

(김영호 (일본어 92))

□ 합칩니다

- 10월 17일 도서관 1층 자료실 물품 보관소에

에베레스트 산군, 아마다불람

• 11월 25일에 최자항군이 군대 갑니다.

보내기 전에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한국외대 신악회)

• 11월 25일에 최자항군이 군대 갑니다.

보내기 전에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독일어과 학생회)

•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운 지영이만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영원히...

일본에서 보냅니다.

(김영호 (일본어 92))

□ 합칩니다

- 10월 17일 도서관 1층 자료실 물품 보관소에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장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장 2층 (0335)30-4112

노동조합, 조합원 임시총회 가져 단일노조건설 위한 노조 해산 가결

본교 노동조합이 지난 31일(목) 오후 3시에 대학원 건물 104호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가졌다.

총 조합원 133명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의 안건은 △대학 단일 노조 건설을 위한 한국외국어대학 노동조합 해산 △지부장 선출 △(가칭) '전국대학 노동조합' 결성 발기인 총회에 지부대표로 참가한 발기인 선출 등이다.

또한 현대, 송실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여개 대학에서도 같은 안건으로 조합원 총회가 열렸다.

제 1호 안건인 '노조해산에 관한 건'이 출석인원 102명의 3분의 2가 넘는 65명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교 노조는 '전국대학 노동조합'이 법적지위를 획득하는 날부터 해산상태에 들어간다. 이는 무소속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2·3호 안건도 가결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 위원장 장진씨는 "여러 차례의 조직경변과 계속된 투쟁으로 우리의 경제적 지위는 어느정도 향상됐다"며 "그러나 대학 3주제 중 하나로서 대등하게 서기 위해 전국 대학 노동자들은 대단결해야 한다"고 노조해산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5일(금) 본교 대강당에서 콜롬비아 공화국 에르네스토 삼베르 박사노 대통령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통역대학원, 97학년도 학생모집 실시 144개대 1172명 지원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통역대학원이 97학년도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원서는 지난 23일(수)까지 마감됐으며 공통영어와 전공외국어 과목의 필답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2월(토) 오전 10시에 있었다.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오는

8월(금) 오후 2시 대학원 게시판에 게재된다. 또, 2차시험은 한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필답 및 구술시험이며 시험은 오는 9월(토)에서 10월(일) 일주일간 오전 10시에 있다.

비슷한 144개 대학의 1,172명이 지원한 이번 시험과 관련 통역대학원 교학과 유재화씨는 "지난달 7일 실시됐던 제 1차 필답시험에 비해 응시생이 많지 않았다"며 "1년내내 입시상담을 하고 있는 데다 자주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초고속 ATM 정보통신망 개통 각종 정보 교류·검색 가능

초고속 ATM 정보통신망 개통식이 지난 28일(월) 2시부터 대학원 104호에서 거행됐다. 초고속 ATM 정보통신망이란 국가 초고속 기간망 접속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원격 교육이 가능해지고 세계 각국의 대학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학과 일정

의 온라인화가 가능하며 동아리 홈페이지 및 취업정보 또한 검색이 가능하다. 이 날 축사에서 안병만 총장은 "21세기는 컴퓨터의 시대이므로 우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서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 교육의 발판

제 23회 총장배 테니스 대회 개최

제 23회 총장배 테니스 대회가 오는 16일(금) 오전 9시부터 육군 사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단식·복식으로 남녀 대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재정상황속에서 테니스부는 참가비 없이 의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테니스부 훈련부장 장원도(법·법학 1)군은 "테니스 코트 없는 상태에서 테니스부를 운영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학우들에게 테니스부의 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학교측의 턱없이 모자란 지원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했다"며 "최起码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만큼만큼 진득을 다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테니스부 동문인의 밤 열려

외대 테니스부는 지난 31일(일) 왕십리에 위치한 상록 테니스장에서 동문인의 밤을 개최했다.

32년의 역사에 걸맞게 많은 동문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2일(토)에는 '남자 테니스'와 '여자 테니스'로 나뉘어 테니스부에서 테니스부에서 테니스부와 함께 친선 테니스 대회를 가진다. 테니스부와 함께 경기총회의 시간을 가진 후 뒷날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테니스부는 "과거 학교에 테니스 코트가 있을 때는 많은 선배님들이 오셨지만 테니스장이 없는 외대 현실에서 오시는 선배님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베네치아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본교는 지난 18일(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안병만 총장과 베네치아 대학의 파올로 코스타 총장이 총장실에서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은 양 대학간 교수·학생 교류 및 학술 자료 교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본교가 외국대학과 맺은 71번째 교류협정이다.

외법인의 날, 법대동문 화합의 장

외법인의 날 행사가 지난 2일(토) 오후 2시부터 대운동장과 교수식당에서 개최됐다. 약 100여명의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가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법대발전을 예기하는 자리였던 이날 행사는 축구·야구 등의 체육대회와 경기총회, 화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했던 김동익(법·2)군은 "취지는 좋으나 매년 열리는 행사라서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며 "동문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캠퍼스, 펜터링 노트북 합입판매

양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산하합동 자회사인 초음속 컴퓨팅 펜터링 노트북 컴퓨터를 제작한 본교·교직원들 대상으로 합입판매한다. 전자는 지난 28일(월)부터 12월(금)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합입공공유기기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총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웅인, 영여응변대회 오는 15일

영여외법인(V.F.O.)은 오는 15일(금) 5시 30분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영여응변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원고마감은 오는 11일(월)이다. 또한 참가비는 3천원이며 주제는 자유, 대상은 본교생을 포함한 경인지역 학생들이다.

1등에게는 상금 10만원, 2등은 5만원, 3등은 3만원이 상장과 함께 수여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영여외법인 회장 정(동국·재공)은 이번 대회와 관련, "참가대상을 경인지역 학생으로 넓혔지만 홍보가 미흡해 많은 학생이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대외적 참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그 의의를 두고 우리 동아리의 위상과 인지도를 넓혀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창립 9주년 기념식·축하잔치 조합원들의 결속 다져

본교 노동조합 창립 9주년을 축하하는 '노조창립 기념식'과 '축하잔치'가 지난 21일(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용인캠퍼스 후생관 소극장과 교직원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외부인 20여명과 본교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대현(상관관대)씨와 용인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각 부처 처장

들과 양캠퍼스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노조 부조합장 김창호(용인캠퍼스 학생회)씨는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였을 뿐 아니라 비조합원들과의 하나됨을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의의를 밝혔다.

생협, 우리문화유산 답사기행 다녀와 가야문화 돌아보는 계기 돼

'우리의 역사, 가야를 찾아서'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는 지난 1일(금)부터 3일(일)까지 2박 3일동안 제 4차 우리 문화 유산답사 기행을 다녀왔다.

외국인 교수수를 포함 26명이 참석한 이 답사는 통도사·화엄지 패총·수로동굴·창녕 고분지 고분·진흥왕 왕릉비·합천 해인사 등 경주지역에 있는 가야문화

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

이번 답사에 대해 생협 정책국장 채근수(사학·불어 3)군은 "홍보의 미비로 참가율이 저조해 아쉬웠다"며 "그러나 역사에 기술되어있지 않은 가야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역사의 뼈대를 만나는 계기였다"고 의의를 밝혔다.

웅인 6차 모의 토익시험 실시 50여명 참가

시시영어사 주최로 제 6차 모의토익시험이 지난 31일(목)·1일(금) 신관동 213호에서 약 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시험 결과에 따라 1등에게는 도서상품권 10장이, 2등에게는 7장, 3등에게는 5장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시영어사 관계자 최유진씨는 "이번 행사는 정기토익을 대체한 실력검사를 취지로 실시됐다"며 "학생들이 꾸준히 영어공부를 진행하면 된다"고 바램을 밝혔다.

취업준비중인 웅인캠퍼스 김성오군을 만나

이 사람



취재를 요청했을 때 그는 친구와 도서관에서 입시원서를 써먹고 있었다. 그의 취업 대표이기도 한 김성오(통학·일 본어 90)군과 친구 이철희(통학·일본어 89)군은 서로 대학원기를 주저하고 있다. 토익 점수와 일본어 능력 측정 시험인 JPT에서 고득점을 얻은 그가 서류전형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타교에 비해 전담학과 교수의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편이 아쉽다고 했다.

후천에서 서울캠퍼스를 통해 얻은 것만 웅인으로 전래하고 마다 수업을 위해 추천서가 턱없이 모자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그것을 하루하루 두 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최근 취업상태를 볼 수 있고 담당이 간단한 상담과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인사생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자세히 준비한 것을 토대로

"아직도 능력보다는 학벌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제 2캠퍼스 출신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에서 그는 캠퍼스 구분이라기 보다는 그대신 학교 소재지를 표기하는 편이 생겨 요즘의 학벌체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토익 점수와 일본어 능력 측정 시험인 JPT에서 고득점을 얻은 그가 서류전형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타교에 비해 전담학과 교수의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편이 아쉽다고 했다.

후천에서 서울캠퍼스를 통해 얻은 것만 웅인으로 전래하고 마다 수업을 위해 추천서가 턱없이 모자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질문에서 그는 그것을 하루하루 두 번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최근 취업상태를 볼 수 있고 담당이 간단한 상담과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인사생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자세히 준비한 것을 토대로

같이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했을 때 그는 "먼저 학생들 스스로가 열등의식이나 자기한계를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졌던 사람이 20명이 상 고배를 마시고 있다고 취업 준비에 막연히 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부탁하고 싶은 말에서는 '대학에서 들어오는 추천서나 합격증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기업에 취업을 요구하는 공격적인 방식을 택했으면 한다'고 바램을 표했다. 취재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답답하다'라는 것이었다.

취업장면을 넘어서 취업대란이 되고 불리해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능력보다는 학벌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취재 후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그는 1등 모의시험에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려는 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김창희 기자

97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 학사

세계경영대학원 (야간)

1. 모집과정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증권금융학과,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 세계지역연구학과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접수 : '96년 11월 4일(월) ~ 11월 22일(금)
5. 전형일시 : '96년 11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경력 및 재직증명서 1통
7. 특징 :
 - ※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는 특별전형함.
 - ※ 비상관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 ※ 국가공무원, 군, 경찰, 각급학교 교직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 자격시험에 특정이 있음.
 -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우대함.

1996년 11월 일

세계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0명
2. 모집전공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상담교육, 유아교육, 전자계산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접수 : '96년 11월 4일(월) ~ 11월 15일(금)
5. 원서접수 : '96년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6. 전형일시 : '96년 11월 23일(토) 오전 10시 부터
7. 제출서류 : 입학원서, 대학원(예정)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 현직교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교원자격증 사본 1통
8. 특징 :
 - ※ 현직교사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 현직교사(시간강사포함)의 자격 및 경력은 서류전형시 반영함.
 - ※ 재학생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전화: 961-4116, 963-6881

1996년 11월 일

교육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

과	과	전	공	인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MIS	0명	0명
		세무·회계	0명	0명
		생산·운영관리	0명	0명
		조직·전략	0명	0명
이학석사	응용통계학과	소프트웨어공학	0명	0명
2. 지원자격 :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7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 영·미 구술시험
4. 원서 접수 및 접수 : '96년 11월 4일(월) ~ 11월 15일(금)
5. 전형일시 : '96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6. 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 (명함관 3매 및 명함장 1매) 1부 나. 대학원(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7. 기타 :
 - ※ 본 대학원은 원리박사인 경영정보학 및 관련분야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주간 석사학위과정임.
 - ※ 교육의 목표는 현대경영학이론과 현대컴퓨터 이론을 접목시켜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MIS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음.
 - ※ VAX, 시분배(유니크스) 및 SUN, IBM PC형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음.

1996년 11월 일

경영정보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명
2. 모집학과 :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신문화학과 · 신문전공, 방송전공, 외교안보학과 ·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공공홍보학과 · 공공홍보, 홍보전공, 공공감사학과 · 공공감사, 공공감사전공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접수 및 접수 : '96년 11월 4일(월) ~ 11월 29일(금)
5. 전형일시 : '96년 12월 7일(토) 오후 2시
6.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장사본 4매,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7. 특징 :
 -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 국가공무원(군·경·경찰)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전화: 961-4093, 962-3950

1996년 11월 일

정책과학대학원

연극평 - 비연소

변소를 갖다와도 시원하진 않다, 우습기만 할뿐

웃음에서 풍자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워



변소는 역물인 현대인의 배설구이다. 연극은 이렇듯 심각한 주제의 극본을 단순히 재미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창작극은 특히 세계 초연인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일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흥미로운 일입니다.” 배우이기도 한 연출자 박광정은 그의 연출의 끝에서 연극 ‘비연소’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 차이무(차이무무대선)의 세 번째 작품인 ‘비연소’는 우리 시대의 정면회의의 하나로 의미있는 시도라 말할 수 있다. 마치 영화의 스틸 사진 마냥 순간 정지점을 던져 주는 연극 ‘비연소’는 28개의 장면이 분절되어 보여진다. 더구나 5명의 연극자가 60여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연극은 연기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모노드라마 형식과는 또 다른 연극적과 순발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비연소(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놀라게도 보니 사실감과 그에 따른 과장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연극 ‘비연소’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재미난 연극을 포화하고 있는 극단 ‘차이무’의 성격과 존재의 우아함을 조형하는 어릿광대와 같은 연극의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면 1 프로로그에서는 영화배우로 활발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명계남씨가 나와 ‘비연소’라는 창작극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물론 연극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몇가지 주의 사항과 극단 ‘차이무’의 방향성을 밝힌다. 의도된 무대 위에서 모든 움직임을 연기로 볼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의 등장 또한 극화면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마치 소극장 관람의 일부 마냥 그저 감상하기만 한다. 불이 꺼지고 선글라스를 쓴 다섯 명의 연기자들은 묵묵히 무대를 걸어 들어와서 서 있다. 그들은 모기 관의 냄새를 피우며 간헐적 간헐신 신고하면 삼금이 열리고 응얼거린다. 희극화된 그들의 모습은 사실 관객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웃고 비웃을 수 있는 존재들로 국화된다. ‘비연소’가 역물인 현대인들의 정신적 배설 장소로 설정된 것이라면 관객들은 어둠 속에서 역시 눈을 반짝거리며 풍광거리며 배설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자신이 생각

하기에도 무척 희극적일 테니까...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 연극이 집합 현실에 대해서 갑작스런 대토론이 벌어진다. 호흡을 거두고 작가는 비연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21세기를 목격해 두고있는-이것조차 무척 조롱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아름다운(?) 자본화인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진부한 연극인들의 배고픈 논쟁인 동시에 한국 연극의 사각 지대를 보여주고도 한다. 한국적 앞선의 포르노 ‘맛소 부인 바람났네’의 대히트를 바라본 연극인들이 연극계에 또다른 자살을 낳았다는 건 지극히 또다른 이데올로기 수 있을까?

그러나 무대 위에서 그들의 연기는 리얼리즘의 다이어트일 뿐이었다. 작가의 컨셉이 결국은 사실을 우회한 풍자에 있음을, 난 왜 한계와 서글픈 그리고 흥행을 노린 슬랩스틱 코미디 재작자의 아이러니는 주제 의식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 토론은 배고픈 연극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도가 붙은 자본주의의 난과 같은 연극계의 자조 어린 모습이다. 일명 ‘화끈하게 벗기는 연극’의 성행이 변기 위에 나란히 앉은 연극인들을 방어하기도 하고 규탄하기도 한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성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스트림 컨서트가 되어 아슬아슬한 정면 연출로 서비스 할 줄도 안다. 허기야 비셀 푸르기 권력의 정면을 다루기 쉬운 육체에서 찾았던 것도 ‘비연소’의 권력이라는 조어의 의미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청소부는 비연소(변소) 청소를 하며 투덜거린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와 금연이라는 규정이 무시되는 것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그저 웃음을 던져 주기 위한 설정이었다. 변소의 장면 화들은 장면 6의 ‘아름다운 질서’나 장면 7의 ‘무능한 남자’ 그리하여 장면 28까지 계속되는 단편적인 개그로 재치되고 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으로 보는 것으로도 지쳐버린 개그 풍트를 몇몇 낯익은 연기자들의 모습을 통해 본다는 게 전혀 연극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은 브라운관의 흥미로 지라지는 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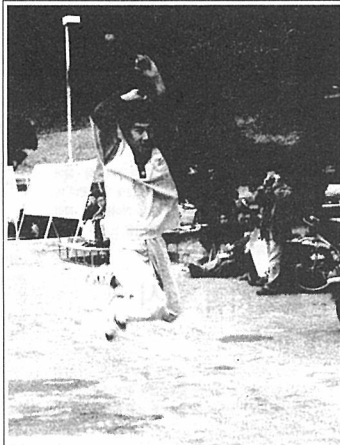
레비전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논쟁을 하거나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있는 우리들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해 두면 처리리 만이전원

의 무게가 마냥 가볍기만 하지는 않으리라 자위하고 한다. 현대는 텔레비전이 사회구성체 문화를 강간하고 우리 강간당한 문화의 HIV 반응자로 낙인 당하고 그 속에서 이반-퀘어 문화를 벌이고, 논쟁하고 텔레비전은 사실 보도의 명목으로 강간하고 마는 마인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버릇없는 한층원을 도시 개릴라라는 특이한 조어 선택으로 방송과 언론은 거짓(?) 박테루를 어린 학생들에게 먹였고 연극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자 정신을 강변하고 있다. 제기암, 물론 연극 중간 중간에는 현실에 대한 풍자가 나오고 있다.

변소라는 무대 설정 자체가 풍자를 암시하고 있지만 변소 안에서도 상기의 크기로 지극한을 느끼는 현대인의 풍자가 개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박종 총장의 과거 주시와 발언을 재마나 노래와 몸짓으로 익살을 부리지만 익살을 잃은 인본의 미디어 서커스(MEDIA CIRCUS)와 하이라이트를 받으며 위기감을 조장하는 권력자들을 풍자하게 풍자하길 바란 건 창작극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었을까? 장면 15의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흥겨운 춤의 분위기는 그 뒤이어지는 장면 16의 ‘개구리가 몸을 던진 밤, 북한 강에서’에서 볼 만한 개그로 공감각화 된다.

연극을 보면서 난 졸지 않았다. 시종 박동과 익살을 피우는 무대 앞에서 졸 수 있다는 건 위대한 인간의 특권이다. 다만 시그널과 생각하기도 귀찮고 화끈한 액션이나 혹은 톨랄랄랄라 놀라 그리며 일요일 오후 방구속에서 포르노나 본드의 황상을 짓을 어떤 학생들에게 너무 신기한 세계일수 있는 비연소였을 뿐이다. 요즘은 테러리스트들을 너무 많이 만난다. 그러나 그마저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건 나의 독선인가? 우리의 결핍인가?

안 동 환
〈정책 · 신방 2〉



도약만을 위한 땀이 될 수는 없다.

한 순간만을 위한 땀이 될 수는 없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 나쁜 세상을 위한

창원의 기상으로

뛰어날 것이다.

나이가 할 때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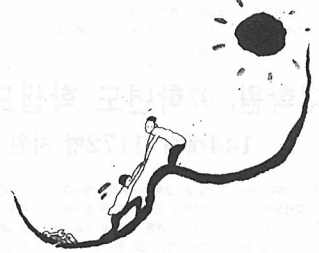
통일 한국의 하나된 모습으로

- 동원계 중 30(수) 활터 시연에서 -

김학영 기자

자 원봉사 경험기

12세 장애 소년이 가르쳐 준 21세의 대학 생활



지난 9월 초의 일주일간의 시간은 내겐 지난 19년과는 조금 색다른 기간이었다. 내 안에 있는 또다른 나를 발견했다고 할까? 이렇게 말한다 면 마치 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줄 알겠지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자원봉사가 그것이다. 화과장실 게시판에서 우연히 알게된 기회. 내용 인 즉 ‘온평한사람’이라는 고아 및 장애아동복지단체에서 약 보물에 걸쳐 세계 7개국의 장애아들을 초청하여 시낭송 대회를 갖게 된다. 그 중에 전광익인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소년 이 형명 게어 있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자라 실력있는 선배들 손에 맡겨지지 않고 실력 있고 학번 낮은 내게까지 기회가 닿은 것이다. 이런 것을 천우성조라고 부르던가? 말하는 마음으로 공감으로 마음을 나가기 되었다고 되칭마비 장애인인 존 케리누(Jean Quirino)라는 금발의 12세 소년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황색대에 앉아 푸르디 푸른 눈을 깜박이며 별천지라도 온 두 사방을 두리번 거리던 케리누. 그로부터 난 24시간 케리누와 그의 어머니 앞에 붙어 있어야 했다. 영 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그들에게 서울은 그리 먼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난 그 기간 만 끝은 내가 아니었다. 식사, 용변부터 아이의 투정질도 받아주어야 했고 시낭송을 위해 그의 시 낭송 선생이 되기도 했다. 시내 관광을 나가는 날은 산 넘어 산이었다. 목발을 쓰기도 하지만 휠체어가 없는 장시간의 육의활동이 불가능한 케리누에게 턱없이 부족한 서울 시내의 장애인용 시설. 게다가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들은.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남들의 시선이었다. 시내 곳곳을 갈때마다 케리누에게 꽃히는 시선은 동물원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특히 단지 시지를 쓰지만 불행한 존 케리누는

정신장애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케리누에게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지 않은 시간은 흘러 시낭송대회날 그전날부터 케리누의 첫은 웃이 덜 앞다며 세박까지 일어나 발을 동동 구르던 그의 어머니는 결국 직접 세트를 사서 입고하고 안심이 되었다. 그날 공연은 대성황이었다. 1000여석의 연극극장을 꽉 채운 관람객들 만큼 차려내던 케리누의 긴장된 모습 10시가 넘은 시각에서야 그의 차례가 돌아왔고 낭송도중 서너 차례나 맘을 더하여주어 함만큼 흥분해 있었다. 아니 사실 수리도 하면 어찌나 하는 마음에 맘을 더해주던 내내 시 낭송을 하던 내 모습이 그보다 더 떨렸는지 모른다. 낭송은 일종의 실수도 없이 끝났고 공연이 끝난후 케리누는 수많은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한지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 났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기에 수업을 빼고 한가한 내게 한평생 시간은 이미 다 재배된 것이었다. 이 일주일간의 일상에서 빛이난 생활은 내게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2년간의 대학생생활은 내게 아무모를 마음의 병을 주었다. 중학교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들의 돌연한 인내. 불면증이 생기도록 머리 속을 꼭 채우고 있던 그 여자. 모든 것이 답답하고 정문을 열면 초록의 대지 대신 사투언 불면자만이 한겨울의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자화자찬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인 케리누와의 만남은 갈증으로 갈라진 내 가슴에 한창해 단비가 되어 초록의 새싹을 피워준 것이다. 커서 무엇이 되겠다는 신분기자의 질문은 서울 쓰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할 때 난 내 배미는 가슴이 단 비로 촉촉히 적셔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이 단비를 케리누 내 마음에 영원히 머릿지 않는 달콤한 샘이 찾기를 기원한다.

심 용 주
〈서양 · 포어 2〉

수습 기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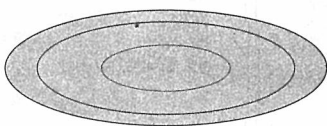
“오리 선생의 명예퇴직”

명수당의 오리가 지키던 왕산을 이제 당신이 지켜갑니다

외대학보가 용인캠퍼스 수습기자를 추가모집합니다.

제2연호의 황토를 부수고 민족자유언론의 선봉에 설 왕산인, 그대를 외대학보의 기자로 모십니다.

모집기간 : 11월 14일(목)까지
모집부분 : 사회 · 대학 · 문화 · 사회부
전 형 : 자기 소개서, 논술및 면접



민족자유언론
외대학보